

# 고려가요 난해구 몇 구절에 대하여

황 선엽\*

## 1. 머리말

양주동(1947) 이후 고려가요에 대한 해석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새로운 견해가 추가되고 기존의 해석이 더욱 정교화되어 왔다. 이것은 봉적문고본 「악학궤범」의 발견이 끼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겠으나 그 동안 선학들의 부단한 노력이 기울여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로는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론 이것은 국어학계가 그 동안 거두어 올린 성과로 인해 새로운 견해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학계의 전반적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기는 하나 향가의 경우 그 성과가 이전만은 못하다 해도 꾸준히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향가 전반을 다룬 저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고려가요에 대한 어학적 연구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다.

고려가요 연구가 침체된 이유는 김완진(1985)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5세기의 언해 문헌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

---

\* 박사과정

이다. 최근 십여 년 사이에도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권들이 여러 책 나타났으나<sup>1)</sup>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문법 정보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한 권에서 기껏해야 두세 개 정도의 새로운 어휘를 찾아 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려가요에 대한 미해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색 다른 자료나 시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완진(1985)는 그러한 입장에서 고려가요 연구 방법론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고려가요의 내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은 산적한 고려가요의 문제에 비해 너무도 작은 부분만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가요의 형태나 문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댈 만한 언덕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끝내 버릴 수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5세기의 언해 문헌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의 탈출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필자는 요즘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구결자료가 바로 고려가요 해석이 기댈 수 있는 새로운 언덕이라고 생각한다. 고려시대의 구결이 차자표기라는 점과 신라시대와 15세기를 연결시켜 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향가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동시대 자료라고 할 수 있는(비록 표기방식이나 전승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고려가요의 해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고려가요 중 두어 구절의 난해구를 구결자료를 통해서도 새로이 살펴볼 것이다.

## 2. '설진 강수를 비조라'에 대하여

「청산별곡」 8연의 제2행인 이 구절은 양주동(1947)에서 '맛조흔 濃酒를 빚는

1)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현존하는 권들에 대하여는 고영근(1993)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는 1995년에 구결학회에서 경북대 남권희 교수를 통해 학계에 알려진 『월인석보』 권4(복각본), 권15(초간본)와 역시 작년에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나온 『월인석보』 권25가 있다.

고나'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김완진(1982)에서 지적되었듯이 감탄형으로 볼 수 없다. 즉 '비조라'는 1인칭의 부정평서형으로 '(내가 술을) 빚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15세기의 문법적 지식으로 보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므로 여기서 더 문제삼을 것이 없다. 다만 '설진 강수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어형이 문중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주동(1947)의 해석이 그대로 답습되어 오고 있는바, 이 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필자가 '설진 강수를'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설지-'와 '강술'이란 어형이 한 번도 문중되지 않았다는 데 연유한다. 양주동(1947)에서는 '술지-'의 변형으로 '설지-'를 설정하였으나 '설지-'란 어형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의미상으로도 술에 대해 '술지다'는 표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강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설지-'의 '설-'을 '설이다' 등의 '설-'과 관련시키는 견해(박병재, 1994)도 있었으나 이 견해는 그렇게 관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덜 익은 술을 빚었다'는 말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미상의 문제가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필자는 '설진강수를'을 반드시 '설진 강수를'로 끊어 읽어야 할 당위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모호한 의미를 바탕으로 직관에 기대어 끊어 읽기보다는 「청산별곡」의 다른 부분과의 비교를 통한 시 전체의 짜임새를 바탕으로 분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 青山에 살어리 랏다 <제1연의 2행>

자고니러 우러라 새여 <제2연의 2행>

물아래 가던새 본다 <제3연의 2행>

나즈란 디내와 손더 <제4연의 2행>

누리라 마치던 돌코 <제5연의 2행>

바른래 살어리 랏다 <제6연의 2행>

에경지 가다가 드로라 <제7연의 2행>

(2)      제1행      제2행      제3행      제4행

제1연	3 3 2	3 3 2	3 3 2	3 3 2
-----	-------	-------	-------	-------

제2연	3 3 2	4 3 2	3 3 2	4 2 2
-----	-------	-------	-------	-------

제3연	3 3 2	3 3 2	3 3 3	3 3 2
-----	-------	-------	-------	-------

제4연	3 3 2	3 3 2	3 3 2	3 3 3
제5연	3 3 2	3 3 2	3 3 2	3 2 2
제6연	3 3 2	3 3 2	4 4 2	3 3 2
제7연	3 3 3	3 3 3	3 3 3	3 3 3
제8연	3 3 2	2 3 3	3 3 2	4 3 4

(1)은 각 연의 제2행만을 제시한 것이고 (2)는 8연까지 후렴구를 제외하고 각 행의 음보 별로 음절수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1)에서 제2연의 첫 음보가 4음 절인 것을 제외하고는 첫음보가 모두 3음절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2)를 통해서 각 행의 첫 음보를 살펴보면 2연의 2행 외에도 2연의 4행, 6연의 3행, 8연의 4행이 4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8연의 2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행의 첫 음보도 2음절로 되어 있는 예는 눈에 띄지 않는다. 즉 2 음절로 된 음보를 살펴보면 세번째 음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연의 4행 둘째 음보와 5연의 4행 둘째 음보만이 예외적으로 2음절로 되어 있을 뿐 첫 음보가 2 음절로 된 것은 8연의 2행이 유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설진 강수를 비조라’는 잘못 분절된 것이라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설진강 수를 비조라’로 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두번째 음보에 2음절을 가지는 예가 2곳(2연의 4행 둘째 음보, 5연의 4행 둘째 음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절이 ‘2 3 3’이라는 기준의 견해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이다. 또한 ‘술’이 이전 시기에는 ‘수율(<수 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절은 더욱 일반적인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종래의 견해에 “수불”이란 어형을 넣으면 ‘설진 강수보를 비조라’가 되어 ‘2 4 3’이라는 더 이상한 구조가 될 것이나 필자의 견해와 같이 첫 음보를 3 음절로 하고 ‘수불’을 넣으면 ‘설진강 수보를 비조라’가 되어 (2)에서 볼 수 있듯이 「청산별곡」에 많이 나타나는 ‘3 3 3’의 음절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는 순수히 노래의 구조적인 측면에만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진강 수를 비조라’로 읽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우선 ‘설진강’이 단일어인지 ‘설+진강’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술의 종류나 용도와 관련되는 술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

해 볼 뿐이다.<sup>2)</sup>

### 3. ‘仝쳐재 너러신고요’에 대하여

정읍사의 이 구절은 양주동(1947)에서 ‘전주 시장에 가셨는가요 / 가 있는가요’<sup>3)</sup> 정도로 해석된 이후 ‘仝’이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재’와 관련되는 것인지 앞의 악곡과 관련되는 어구인 ‘後腔’과 관련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全州’라는 지명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노래의 창작시기가 백제시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을 뿐 그 해석에 대하여는 크게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현희(1994-7)에서 ‘너러신고요’에 대해 ‘널-’이 ‘녀-’와는 달리 왕복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어시-’의 용법, ‘-요’의 존재는 무엇인가, 의문사가 없는데도 의문어미로 ‘-고’가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 어떤 해답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뒤에서 이 구절의 해석을 ‘저자에 왕래하셨는가요’로 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을 답습하였다.

필자는 ‘너러신고요’에 대해 이현희(1994-7)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며 이 구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 한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요’를 양주동(1947)에서와 같이 ‘이오’의 합성인 의문조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

2) ‘설진강’을 ‘설+진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설(元旦)’과 관련해서 설에 쓰는 어떤 종류의 술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진강’에 대해 ‘鎮江縣(경기도 강화군에 있던 옛지명. 본래 고구려의 首知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 首鎮縣이 되었다가 고려 시대 鎮江縣으로 고쳤다 함)’과 관련시켜 진강현에서 나던 술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는 ‘청산青山’, ‘허금奚琴’ 등과 같이 한자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3) ‘너러신고요’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은 ‘가 계시는가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독이 ‘-시-’를 이중적으로 해석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김완진 선생님께서 1995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 시간 중에 언급하신 바가 있어 여기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상정해 보았다. 양주동(1947)에서는 ‘시’가 존칭의 용법과 비존칭의 용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만 했을 뿐 여기서의 용법을 확정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기원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다. 중세 언해 자료에서 '-요'가 의문조사로 사용된 예는 물론 찾을 수 없고 의문어미 뒤에 통합한 예는 근대국어에서조차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매우 현대국어적인 요소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의문의 의미로 파악해 온 것은 '-ㄴ고'에 너무나 이끌린 결과일 것이다. '-요'가 의문조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요'에 대해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견해에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ㄴ고'를 다시 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현희(1994:7)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 구절에는 의문사가 없는데도 '-ㄴ고'가 쓰이고 있다는 점도 '-ㄴ고'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즉 '녀러신고요'의 어말어미 부분을 종래와 달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전 연구들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녀러신고요'에서 그 어간이 무엇이며 그 어간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의 관찰을 요하는 까닭에 나누어서 논의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어간과 어말어미 부분을 제외한 선어말어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어간에 대한 고찰을 하기로 한다.

### 3.1. '녀러신고요'의 어간

'녀러신고요'의 어간이 '널-'인가 '녀-'인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어간 이하의 부분을 분석하는 문제와 크게 관련이 된다. 어간을 '널-'로 보는 경우 어미 부분은 '-어신고요'가 되며 어간을 '녀-'로 보는 경우에는 어미 부분이 '-러신고요'로 파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녀러신고요'를 '널+어신고요'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다시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3.3에서 논의할 것임) '녀+러신고요'로 본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분석만을 허락한다.

(4) 女(어간)+러(부동사형어미)+시(완료)4+ㄴ고요

---

4) '이시-'에서 문법화한 '(-)시-'는 이와 같이 부동사형어미 '-아/어' 뒤에도 올 수 있고 선어말어미 '-거/어-' 뒤에도 올 수 있었으므로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시-'가 문법화의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술의 편

(4)의 분석은 김완진 선생님께서 수업시간 중에 제주방언 '오랑' 등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라'를 토대로 분석하신 것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어/아'의 이형태로서 '-러/라' 등이 다른 예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아래의 '너러오-' 등에서 보이듯 중세국어에서 동사 '널-'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의심될 수 있다.<sup>5)</sup>

(5)는 후기중세국어 자료 중 '너러오-'의 예들을 모아 본 것이다.

(5) ㄱ. 斯陀含은 혼번 너러오다 혼 빤디니 (월석 2: 19)

ㄴ. 누의 지비 짚간 너러오나지라 헬야눌(請暫詣妹家) (삼강 효자도 29)

ㄷ. 丁蘭이 나 너러와 혼니 木像이 초기 너겟거늘(蘭還見木像色不懼) (삼강 효자도 10)

ㄹ. 乙무니 逃亡호야 셀리 너러오리이다 (월석 8: 98)

ㅁ. 鬱單越에 너러오사 迦葉일 뵈시니 (월곡 104장)

ㅂ. 어듸 너러오시는고 저제 비단 사라 너러오노이다(那裏去來 角頭買段子去來) (번박 상: 14)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 '너러오-'의 예들을 바탕으로 '너러신고요'에서 동사어간을 '널-'로 분석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분석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어간을 '널-'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모두 위의 예들을 '널-'의 활용형으로 파악해 왔는데 (5)의 예에서 보이듯이 '널-'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항상 '너러오-'라는 합성동사에서만 보인다. 즉 '널-'이 단독으로 쓰인 예는 '너러신고요'가 유일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전에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던 동사 '널-'이 15세기에 이미 '너러오-'라는 합성동사를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보고자

의상 선어말어미적인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

- 5) 필자는 제주방언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어 깊은 논의를 펼 수는 없다 그러나 현평효 (1985)의 '-라도', '-라샤', '-라서' 등은 '오-'나 '르-' 변칙 동사들에 붙는 어미라는 기술을 고려할 때 혹 '오-'가 기원적으로 '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오랑'과 같은 특이한 활용형이 보일 때 그 어미가 특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간 쪽이 불규칙한 활용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 또한 양주동(1947) 이후 ‘널-’과 ‘녀-’(行)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의미차가 있는 어휘들이라 설명되어 왔고 이현희(1994:7)에서는 ‘녀-’는 어느 곳으로 가는(다니는) 행위만을 뜻하지만 ‘널-’은 어느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15세기의 ‘널-’이 나타나는 예들이 모두 ‘녀려오-’라는 합성동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녀-’와 ‘녀려오-’의 의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설명이 ‘녀-’와 ‘널-’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7)</sup>

그렇다면 ‘널-’과 ‘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이 두 단어가 서로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의 기초로 우선 자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 다른 어간형을 가지는 예들을 살펴보겠다.

#### (6) 계사 ‘-이-’의 활용

- 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오, -이디, -이어늘
- 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라, -이롭~음, -이론, -이魯~을멘~을멘
- ㄷ.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며, -이니, -인, -일

#### (7) 동사 ‘흐-’의 활용

- 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흐고, 흐디, 흐거늘
- 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흐야, 흐야늘, 흐음~흡, 흐운~흔, 흐울~흘, 흐요더~호더
- ㄷ.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흐며, 흐니, 흔, 흘

#### (8) 동사 ‘나르-’(至)의 활용

- 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나를오~나르고, 나를에~나르게, 나를어나~나르거늘
- 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나르러, 나르러도, 나르를
- ㄷ.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나를면~나르면, 나를며~나르며, 나르르시

6) 이현희(1994)에서는 이 외에도 ‘널-’은 평성, ‘녀-’는 거성의 성조를 가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녀려’는 평거, ‘녀-’는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다 가질 수 있는 듯하다.

7) 이 점은 ‘다녀오-’와 ‘다니-’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 니~니르시니

(6)은 계사 '-이-'가 자음어미,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보이는 활용 양상이다. 안병희(1987), 유동석(1987) 등에서는 이러한 계사의 활용양상을 토대로 그 기원형이 '-일-'일 것으로 보았다.<sup>8)</sup> (7)은 동사 '흐-'의 활용양상인데 이현희(1985)에서 역시 이러한 활용양상을 토대로 '흐-'의 어간이 기원적으로는 '히-' 였을 것이라 보았다. (8)은 동사 '니르-'(至)의 활용양상인데 안병희(1959)를 참조하였다.

(6), (7), (8)의 예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취하는 어간의 모습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로는 자음어미와 모음어미만을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6), (7), (8)과 같이 자음과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용언은 매우 많지만 필자는 이 세 예만으로도 논의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계사 '-이-'는 15세기에는 선어말어미 '-오-' 앞에서는 '-일-'과 '-이-'가 다 나타났으나 부동사형어미 '-아' 앞에서는 '-일-'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이라(서)'와 '-이어(서)'가 모두 쓰일 수 있다. 동사 '흐-'는 선어말어미 '-오-'와 '-아-' 그리고 부동사형어미 '-아' 앞에서 '히-'로 교체되었는데 이미 15세기에도 선어말어미 '-오-' 앞에서는 '흐-'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사형어미 앞에서는 '흐-'로 나타나는 일이 없었으며 이는 현대국어에서도 지속되어 '하여'로 실현되고 있다. 한편 동사 '니르-'는 15세기에는 자음어미 앞에서도 '니를-'이 보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이 경우 '이르-'만이 쓰인다. 즉 이 세 단어들은 이전시기에는 '-일-, 히-, 니를-'이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선가 자음 어미 앞에서 그 말음을 잊어 버리는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음어미 앞에서까지도 일어나 어간의 재구조화

8) 계사의 기원형을 '-일-'로 보는 견해는 『용비어천가』의 '느지르삿다'와 관련해서 이미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이현희(1994)에서 밝혔듯이 서재극(1984), 남풍현(1987)에서와 같이 '느지르삿다'의 '-르-'는 화상법의 선어말어미 '-더-'의 이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느지르삿다'의 '-르-'의 '르'이 '-으시-' 앞에 나타난 계사 '-일-'의 어간말 자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음어미 앞에서의 활용양상을 고려할 때 계사의 기원형이 '-일-'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가 일어나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활용의 통시적 변화를 간단히 아래의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각 용언이 활용시 기원형을 유지하는 정도

	모음어미		자음/매개모음어미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이-	◎	△	X	X
흐-	◎	○	X	X
나르-	●	●	◎	X

◎ : 모든 활용형에서 기원형을 완벽히 유지하며 개신형을 보이지 않음.

○ : 모든 활용형에서 기원형을 유지하나 일부어미에서는 개신형도 나타남.

● : 일부의 어미에서만 기원형을 유지하며 나머지 어미에서는 개신형이 나타남.

△ : 일부의 어미에서만 기원형이 개신형과 공존하여 나타남.

X : 어떤 어미에서도 기원형이 보이지 않음.

표1은 15세기 공식적으로도, 어간 교체를 보이는 각 어사들이 각기 그 교체 양상에 있어서 상이한 정도차를 보인다는 점과 현대국어로의 변화 과정에서도 역시 정도차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사 '-이-'가 15세기와 현대를 아울러 살펴볼 때 기원적인 모습을 가장 적게 유지하는 반면에 '나르-'는 그 기원적인 모습을 비교적 많이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흐-'는 15세기에는 모음 어미 앞에서 비슷한 정도로 기원형이 유지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흐-'가 더 기원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널-'과 '녀-'에 대해서도 위의 용언들과 마찬가지로 '널-'이 기원적인 형태이며 무슨 이유에선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매개모음이나 자음어미 앞에서 '녀-'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널-'의 변화는 위의 어떤 단어보다도 먼저 일어났든지 아니면 그 출발과 상관없이 진행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고려시대 자료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고려가요에서만 ‘너러신고요’로 그 혼적을 남기고 있으며 15세기에는 ‘너러오-’와 같은 합성동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리라는 생각이다.

중세국어에서 ‘녀-’의 활용양상은 다음과 같다.

- (9) ㄱ. 흥경바지돌하 길흘 몬 녀아 天神人과 비더니이다 (월곡 86장)
  - ㄴ. 法이 퍼디여 가미 를 흘러 녀미 ㄻ를색 流行이라 ㅎ느니라 (석보 9: 21)
  - ㄷ. 길 녀매 나사 가낫다(就行役) (두초 8: 20)
  - ㄹ. 길 녀피 어려우를 보디 아니 ㅎ낫다(不見行路難) (두초 16: 50)
  - ㅁ. 서르 자바 콩 바터 녀 보니(相携行豆田) (두초 15: 5)
  - ㅂ. 어젯 바미사 드래 혼터 녀라<sup>9)</sup>(昨夜月同行) (두초 23: 6)
  
- (10) ㄱ. 道 | 그 中에 녀거든 聖人이 法 바다(道運乎其中 聖人法之) (법화 3: 155)
  - ㄴ. 너실 일 녀겨(明日早行) (번노 상: 10)
  - ㄷ. 사르미 바미 녀다가 (석보 11: 34)
  - ㄹ. 녀디 아니 ㅎ느니다(不行) (두초 7: 6)
  - ㅁ. 발 뒷느니로 모다 녀게 ㅎ사미라(使有趾者 共由也) (법화 2: 39)
  - ㅂ. 나를 혼터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악궤 5: 8, 동등)
  - ㅅ. 나를 피셔 녀끈 오느날 嘉俳沙特다 (악궤 5: 8, 동등)
  
- (11) ㄱ. 녀며 너 가(行行) (두초 22: 42)
  - ㄴ. 나리 못드록 녀며 너메 (금삼 4: 2)
  - ㄷ. 널 고디 업스며 (남명 상: 14)
  - ㄹ. 널 ߦ(行) (훈몽 하: 27)
  - ㅁ. 길 널 사롭과 ㄻ티 너기시니 (석보 6: 4)
  - ㅂ. 몸하 ㅎ을로 널서 (악궤 5: 8, 동등)
  - ㅅ. 고우닐 스식음 널서 (악궤 5: 8, 동등)

(9)는 모음어미, (10)은 자음어미, (11)은 매개모음어미와 통합한 예이다. 어느 예에서도 ‘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sup>10)</sup> 다만 ‘너러신고요’와 ‘너러오-’와 같은

9) ‘녀라’의 성조가 ‘상평’으로 실현되어 있어 1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녀-’는 선어말어미 ‘-거-’ 앞에서는 ‘나-’로 교체된다. 다른 동사 뒤에 와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니건 헌(去年), 니건 겨울(去冬), 니건 ㄻ술(去

화석 속에서 그 선대의 모습을 재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녀러신고요'에서 동사어간은 '널-'이며 그것은 '녀-'의 기원적인 모습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보았다. 다음 항에서는 그 어말어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2. '녀러신고요'의 어말어미

'녀러신고요'에서 어말어미를 '-ㄴ고+요'로 분석하는 종래 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새로운 분석 가능성만을 살필 것이다.

필자는 '-ㄴ고요'를 '-ㄴ-'과 '-고요'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고요'는 중세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고녀/고나/괴여/고야' 등과 관련시킬 수 있는 형태로 파악된다. '-고녀' 등에 대해서는 이승희(1996: 12~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승희(1996)에서는 이전에는 16세기 이후에만 나타난다고 기술되었던 이들 어미들이 여말선초 구결자료의 예를 들어 16세기 이전에도 감탄어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논문의 예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2) ㄱ. 良藥 1(은) 多苦 2(고) 忠言 1(은) 逆耳 2(히) (호니) 冷暖自知 1(은) 如魚  
 2(이) 飲水 2(수) 3(히) (딧호니) 何須他日 3(애) 待龍華 3(리오) 今朝 3(애)  
 先授菩提記 2(곤여) (川老金剛經 19)
- ㄴ. 良藥 1(은) 多苦 2(고) 忠言 1(은) 逆耳 2(이니) 冷暖自知 2(이) 3(이)  
 如魚飲水 2(니) 何須他日 3(애) 待龍華 3(리오) 今朝 3(애) 先授  
 菩提記 2(고여) (川老金剛經 19)

秋), 니거늘; 나니-, 우니-, 얼니-, 쪘니-'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가 '널-'과 '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한편 (10ㄴ)~(10ㄹ)과 (11ㄷ)~(11ㅅ)은 어간을 '널-'로 보아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다른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에서 보이는 활용 양상을 고려할 때 어간을 '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 이승희(1996)에 몇 군데의 오자가 있어 바로잡아 옮겼다. (12ㄱ)은 李繡의 발문이 있는 洪武 20년(1387) 판이고 (12ㄴ)은 판식이 같으나 발문이 없으며 (12ㄷ)은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된 永樂 乙未(1415)의 간기가 있는 『금강경오가해』인데 이들 자료는 경북대의 남권희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이다.

ㄷ. 良藥 ㄱ(은) 多苦 午(오) 忠言 ㄱ(은) 逆耳 ヒ・(나라) 冷暖 乙(을) 自知 ハ・  
 ㄱ 土(흐논디) 如魚 へ(이) 飲水 ハヒ・(흐니라) 何須他日 ゞ(애) 待龍華 リ午  
 (리오) 今朝 ゞ(애) 先授菩提記 午述(오녀) (金剛經五家解 8)

(12)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의 '-고녀/고나/괴여/고야' 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고기 노곤여/노고여/노伎오녀(<고녀>)' 등이 여말선초에도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녀러신고요'의 '-고요'가 바로 이 '-고녀' 등에 한 다른 모습인 것으로 파악하려 한다. 다만 이런 견해를 취할 경우 '-고요'와 가장 비슷한 형태인 '-괴여'나<sup>12)</sup> '-고야'와 비교할 때 '어'나 '아'가 왜 '오'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문제 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요'를 '-고야'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앞서 제기한 의문형으로 볼 때의 문제점들을 말끔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노래 전체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樂志」에 기록되어 있듯이 행상인의 아내는 남편이 시장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가셨는가요'의 해석은 상당히 어색하며 '시장에 가 있는가요' 정도의 의미라면 돌아오고 있는 도중인지 아직도 시장에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도 상당히 우회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녀러신고요'를 감탄의 의미로 본다면 남편이 시장에 가 있다는 상황을 한탄하듯이 토로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현대국어의 '-구나'와 마찬가지로 16세기 문헌에 보이는 '-고녀' 등도 새로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승희(1996)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녀러신고요'에서 새로 깨달음이란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미차이에 대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시적인 의미변화라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는 순환론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다만 (12)의 예문에서 새로 깨달음이란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는지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12)도 새로 깨달음의 의미가 있다면 '녀러신고요'의 '-고요'에 대해서 제기되는

12) 앞이나 뒤에 'j'가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j'가 수의적으로 더 들어가기도 하고 ■지기도 하였으므로 '-괴여'는 "-고여'로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며 뒤의 '-고야'도 마찬가지로 "-괴야'로 실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의미상의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따라서 '-고요'를 감탄형어미로 볼 때 우리는 고려가요에 이와 같은 형태가 한 번 더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볼 수 있다. 즉 서경별곡의 '닻끈 더 쇼성경 고외 마른'에 보이는 '고요'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앞의 '西京이 서울 히마르는'과 비교해 볼 때 '고요'를 명사로 보는 것이 옳겠지만 혹 '고외'의 'ㅣ'가 '괴요'나 'ㅣ고요'로 표기될 것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즉 '서울히마르는'에 이끌려 'ㅣ마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것이다. 물론 '괴요'로 볼 때에는 '-괴여/괴야' 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쇼성경' 다음에 계사가 생략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ㅣ고요'로 볼 때에는 16세기 문헌에서 계사 뒤에 '-고나' 류가 올 때는 예가 몇 개 안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로고나'와 같이 감탄의 선어말어미 '도'를 개재시킨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 구절에 대해 양주동(1947)에서 '사랑하오이다마는'으로 해석한 것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된 후 나타난 '괴외호다'의 '괴외'와 연관시켜 '조용'의 의미로 본 견해(박병채, 1994)가 있으나 뒤의 '여희므로 질삼뵈 便民시고'와 의미상 연결이 힘들다고 생각된다. 김완진(1985)는 이러한 의미상의 문제 때문에 '고외'를 '괴외'로 보고 '瑰肆(괴위)'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탄형어미 '-고요'가 아닐까 생각하는바 그 의미는 '닦은 곳이 소성경이구나마는' 정도로 파악하여 앞 구절의 '西京이 서울이지마는'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 3.3. '녀러신고요'의 선어말어미

이제 남은 문제는 '녀러신고요'에서 그 어간 '녀-'과 어말어미 '-고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어신-'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가 하는 점이다. 이를 선어말어미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녀러신고요'의 선어말어미들에 대한 분석

ㄱ. -어(확인법) + 시(주체높임)<sup>13)</sup> + ㄴ-(직설법)

13) 이와 같은 형태소의 연결은 「처용가」의 「기울어신」, 「넘거신」, 「오울어신」, 「우글어신」 등에

ㄴ. -어(확인법) + 시(완료)<sup>14)</sup> + ㄴ-(직설법)

ㄷ. -어(부동사형어미) + 시(완료)<sup>15)</sup> + ㄴ-(직설법)

그러나 이러한 (13)의 분석들을 제각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13ㄱ)과 (13ㄴ)에서 자동사로 생각되는 '널-'에 타동사에 통합하는 확인법형태소 '-어-'가 쓰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거-'와 '-어-'의 교체가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오늘날의 '가-'나 '오-'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널-'이 타동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sup>16)</sup> 이들 분석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확인법과 직설법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음으로 (13ㄷ)은 직설법 '-느-' 앞에서는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시/아시-'가 아닌 '-엇/았-'이 쓰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이들 모두에서 직설법 선어말어미 '-느-'가 '-ㄴ-'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sup>17)</sup>

다만 '-느-'가 '-ㄴ-'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16세기 문헌에서 15세기의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와 어말어미 '-다' 앞에서 '-ㄴ-'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예들을 참고할 수 있다.<sup>18)</sup> 아래의 (14)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서 볼 수 있다.

14) 이와 같은 형태소의 연결은 '정석가', '나거시아', '퀴거시아', '힐어시아' 등에서 볼 수 있다.

15) 이와 같은 형태소의 연결은 '旄頭 | 紫微에 드리쇠시니'(旄頭彗紫微) (두초 6: 21ㄱ), '길히 을마신니 외햇 바티 낙도다'(邇轉山田熟) (두초 7: 30ㄱ) 등에서 볼 수 있다.

16) 주 10에서 언급하였듯이 15세기에는 '녀-'에 확인법 선어말어미가 통합할 때 '니거-'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녀-'가 '-거-' 앞에서 '나-'로 실현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우선은 '널-' 뒤에 '-어/거-'가 쓰였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17) 남편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제높임의 '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런 경우 '널+으시->너르시-'에서 '너러시-'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너러신고요'를 있는 그대로 놓고 15세기 언어 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8) 사실 이 'ㄴ'은 심정적으로는 '-고요'의 중간에 들어갈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 하고 싶다. 즉 "-끈요" 정도가 된다면 '-고녀' 등과 관련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헌자료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이 절에서 해 온 필자의 논의가 아주 허황된 것으로까지 인식하게 하는 역작용을 나타낼지도 모른다.

- (14) ㄱ. 넷 사르미 널오더 자석 나하사 ㅋ 부모의 은혜를 안다 흔느니라 (번역박  
통사 상: 58)

ㄴ. 양넷 말스매 널오더 고디시그니는 당상 잇고 섭섭흔니는 당상 패훈다 흔  
느니라 (번역노절대 하: 43)

ㄷ. 느미 날 아로를 구티 아니훈다 하거늘 (번역소학 9: 54)

(14)에서 볼 수 있듯이 ‘느>ㄴ’의 변화는 16세기 초기의 거의 모든 문헌으로부  
터 나타난다. 물론 감탄형어미 ‘-고나’ 앞에서 선어말어미 ‘-느-’가 ‘-ㄴ-’으로  
된 예는 찾을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느>ㄴ’으로의 변화와 이승희(1996: 14)에서  
든 아래의 (15)와 같은 예들을 고려하면 ‘녀러신고요’의 ‘-ㄴ-’을 현재를 나타내  
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찾을 수 있다.

- (15) ㄱ. 네 독별이 모른느고나 (번역노절대 상: 27)

ㄴ. 네 독별이 모른는고나 (노절대언해 상: 24)

ㄷ. 네 꽈 간대로 혼나무라는괴야 (노절대언해 하: 28)

(15-1)에서 ‘느’였던 형태가 (15-2)에서는 ‘느’으로 바뀌었다. 또한 (15-2)은 17세  
기까지도 ‘-고나’와 ‘-고야(괴야)’ 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5-2)과 같  
은 변화는 후대에도 지속되어 현대국어에서도 자음어간 뒤나 모음어간 뒤 모두  
에서 ‘-는구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승희(1996)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자음어간 뒤에 ‘-는다’, 모음어간 뒤에 ‘-ㄴ다’를 취하게 된 ‘-느다’와는 다른 변  
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필자는 ‘녀러신고요’의 ‘-ㄴ-’에 대해 ‘-느다’의 이원적  
변화에 유추되거나 ‘-는고나’로 넘어가는 과도적 과정으로 ‘-느고나>-ㄴ고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러한  
한 견해가 다른 예에서는 문증되지 않는다는 점과 17세기부터 ‘-는고나’가 바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지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3)과 같은 분석들에서 선어말어미들이 서로 통합관계를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비교적 문제점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10-2)의 분석을 취해  
보고자 한다. 즉 ‘녀러신고요’를 ‘널(동사어간) + 어(부동사형어미) + 시(상태지  
속의 선어말어미) + ㄴ(직설법 선어말어미) + 고요(감탄형 종결어미)’로 분석하  
며 그 의미는 ‘(시장에) 가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으로 선어말어미

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더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4. '어져 녹져 흔는 디'에 대하여

「動動」의 제2연 正月조의 제2행인 이 구절에 대해서도 양주동(1947)의 해석인 '얼려 녹으려 하는데'가 거의 답습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희(1994-1)에서는 '흔는 디'가 '하는데'와 같은 연결어미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15세기 말엽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단순히 '하는데'로 해석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어져 녹져'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았다. 필자는 이 '어져 녹져'에 대하여 최근 고려시대 구절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를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양주동(1947)에서는 '어져 녹져'의 '-져'에 대하여 「將然」의 뜻을 表하는 助詞라 하고 또 '이 助詞는 現行語 「하고, 헤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로 願望의 義를 表하나 單純한 「將然」의 義에도 사용된다. . . 大體로 漢字 「欲」에 해당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16) ㄱ. 네 發願을 흐더 妻眷이 드외져 흔거늘 (석보상절 6: 8)

ㄴ. 내 보아져 흔느다 술밖씨 (석보상절 6: 14)

ㄷ. 니르고저 흔 배 이서도 (훈민정음언해)

ㄹ. 霽塘에 보미 니르러 오고져 흔느니(靿塘春欲至) (두시언해초간 14: 29)

ㅁ. 머리 하야 셰니 니 빠디고져 흔니(頭皓白牙齒欲落) (두시언해초간 25: 52)

ㅂ. 누니 오고져 커늘 뒷 짜흘 보리고 웃더니(欲雪違胡地) (두시언해초간 17: 19)

(16)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예인데 (16-ㄱ)~(16-ㄷ)은 願望의 의미이며 (16-ㄹ)~(16-ㅂ)은 가까운 미래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위의 인용한 양주동(1947)의 견해가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6-ㄹ)~(16-ㅂ)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져'가 단독으로 미래의 의미로 쓰인 일은 없으며 항상 '-고져'만이<sup>19)</sup>

19) '-고져'에서 '-고-'는 무엇인가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16-ㄴ)에서 확인법 선어말어미 '-아-'가 '-고-' 위치에 쓰일 수 있음을

미래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져 녹쳐'의 '-져'를 미래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고려시대 구결자료에서 볼 수 있는 동사구 나열의 문법형태소 '을'과 '어져 녹쳐'의 '-져'를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sup>20)</sup>

(17) ㄱ. 十號니<sup>을</sup>(이져) 三明니<sup>을</sup>(이져) 大藏諦니<sup>을</sup>(이져) 金剛智니<sup>을</sup>ソニ<sup>을</sup>(이져  
져<sup>한신</sup>) (구역인왕경 2장 10행-11행)

ㄴ. 雅思니<sup>을</sup>(이져) 淵才니<sup>을</sup>ソ<sup>을</sup>(이져<sup>한야</sup>) 文中<sup>을</sup>七(옛) 王니<sup>을</sup>入しソナ<sup>을</sup>  
(입돌<sup>한</sup>거며) (화엄경 권14 19장 6행)

ㄷ. 思ソ<sup>을</sup>(한져) 念ソ<sup>을</sup>ソ<sup>을</sup>(한져<sup>한며</sup>) (구역인왕경 3장 20행)

ㄹ. 菩薩<sup>을</sup>(은) 十戶<sup>을</sup>(의) 種行<sup>을</sup>(을) 行ソ<sup>을</sup>(한져) 亦ソ<sup>을</sup>(한) 一切 大人<sup>을</sup>  
(의) 法<sup>을</sup>(을) 行ソ<sup>을</sup>ソト<sup>을</sup>ガ 入<sup>을</sup>(한져<sup>한</sup>누온돌) 示リ<sup>을</sup>(이며) (화엄경 권  
14 18장 18행)

(18) ㄱ. 摩訶般若波羅蜜<sup>을</sup>:(여) 金剛般若波羅蜜<sup>을</sup>:(여) 天王問般若波羅蜜<sup>을</sup>:(여)  
光讚般若波羅蜜<sup>을</sup>:ノシ(여호를) 說<sup>을</sup>ハニ<sup>을</sup>!(악시오다) (구역인왕경 2장  
21행-23행)

ㄴ. 衆生<sup>을</sup>(의) 苦<sup>을</sup>:(여) 樂<sup>을</sup>:(여) 利<sup>을</sup>:(여) 衰<sup>을</sup>:ノ<sup>을</sup>(여<sup>衰</sup>) 等<sup>을</sup>ソ<sup>을</sup>(다한)  
一切 世間<sup>을</sup>(스) 作ソト<sup>을</sup>ガ(한누온) 所<sup>을</sup>(스) 法<sup>을</sup>ソ<sup>을</sup>+(아과) (화엄경 권14  
18장 10행)

(17-1)과 (17-2)은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과 화엄경에 나타난 계사구문의 나열 구문을, (17-3)과 (17-4)은 같은 자료의 동사구 나열 형식을 예시한 것이다. (18)도 역시 같은 자료에서 가져온 명사구 나열 구문의 예이다. (17)과 (18)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면 고려시대의 동사구나 계사 나열 구문은 'A(을/의)  
을 B(을/의)을 (· · ·) 을-'<sup>21)</sup> 명사구 나열형식은 'A : B : (· · ·) :-'  
로 각기 나타낼 수 있다. 즉 동사구(혹은 계사구문)의 나열에는 '을'과, 명사구  
나열에는 ':'여'가 쓰이는 것이 고려시대의 일반적 문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알 수 있고 이승재(1991)에서 향가나 구결에서 '을'과 '口(古)'가 교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 이러한 견해는 이미 김영만(1986: 841)에서 제시된 바 있다.

21) 이 외에도 15세기와 마찬가지로 'A(을/의)을 B(을/의)을 (· · ·) 을-' 형식이 쓰일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어져 녹져’의 ‘-져’도 원망이나 미래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나열의 연결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正月八 나잇 브른/아으 어져 녹져 헤는 데’는 ‘정월의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sup>23)</sup> 정도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 5. 맷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고려가요에 대한 기존의 해독 중 문제가 되어 왔던 서너 가지 구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첫째는 「청산별곡」의 전체 음수율을 고려하여 ‘설진 강수를 비조라’를 ‘설진강 수를(<수보를>) 비조라’로 분절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로는 「정읍사」의 ‘너러신고요’에 대해 우선 ‘널-’과 ‘너-’가 이형태 관계의 어사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 전체의 미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의문문이 아닌 감탄문으로 파악하여 ‘가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 「서경별곡」의 ‘닻끈더 쇼성경 고외 마른’까지도 감탄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동동」의 ‘어져 녹져’를 고려시대 구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문법 지식을 이용해 그 것이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나열 형식임을 밝혔다.

이상에서 필자가 제시한 견해들이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 또한 부족한 형편이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한 고려가요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

- 22) 명사구 나열에 쓰이는 ‘-여’는 15세기까지도 그 혼적이 남아서 ‘나져 바며’와 같은 구문에 나타나고 있으며 치용가의 ‘山이여 미히여 千里外예’와 같은 곳에서도 보인다. 다만 나열 명사구를 포괄하는 ‘흐-’가 뒤에 나타나지 않는 점은 석독구결 자료와 다른 점이 특이하다. 한편 「動動」의 ‘德이여 福이라 호늘’에서는 포괄동사 ‘흐-’가 사용된 반면 ‘-여 -여’ 형식이 아닌 ‘-여 -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현희(1996)를 참조할 수 있다.
- 23) 앞서 언급했듯이 ‘흐는 데’가 아직 완전히 연결어미화한 것은 아니지만 ‘하는 곳에’의 의미에서 상당히 추상화되어 ‘하는 상태에서’ 정도가 되어 전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데’로 해석하였다.

한 모색이 15세기 언어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는 15세기 문법 지식의 축적과 근래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결 연구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가 연구와 달리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업적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고려가요의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초학자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최근까지의 연구업적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업적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1),『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1993),『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국어국문학회 편(1979),『고려가요연구』, 정음문화사.  
 김영만(1986),『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國語學新研究』, 탑출판사.  
 김완진(1971),『청산별곡의 결련에 대한 일고찰』, 지현영화감(『문학과 언어』, 신구문화사, 1996에 재수록).  
 \_\_\_\_\_(1982),『고려가요의 어의분석』,『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_\_\_\_\_(1985),『고려가요 어의 탐색의 몇 경우』,『김방한선생회갑논총』.  
 \_\_\_\_\_(1996),『高麗歌謡 解釋의 反省』, 제23회 국어학회 석좌강의 요지.  
 김형규(1965),『古歌謡註釋』, 일조각.  
 남풍현(1987),『中世國語의 過去時制語尾 '-드-'에 대하여』,『국어학』 16.  
 박병채(1994),『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서재극(1984),『'느지르샷다'의 구성』,『牧泉俞昌均博士 邊甲紀念論文集』, 제명대학교출판부.

- 안병희(1959),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 『國語研究』 7.
- \_\_\_\_\_ (1987), 「月印釋譜 권 11·12에 대하여」, 『국어생활』 9(『國語史 資料研究』, 문학과지성사, 1993에 재수록).
- 양주동(1947), 『麗謠箋注』, 을유문화사.
- 유동석(1987), 「十五世紀 國語繫詞의 形態交替에 대하여」, 『于海李炳詵博士回甲記念論叢』.
- 유창돈(1963), 「느지르삿다攷」, 『동방학지』 6.
- 이승녕(1961), 「<-삿다>攷」, 『진단학보』 22.
- 이승재(1991), 「鄉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의 ロハニ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1991.
- \_\_\_\_\_ (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3.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 이현희(1985), 「'하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 『한신논문집』 2.
- \_\_\_\_\_ (1994-), 「樂學軌範의 國語學의 考察」, 『진단학보』 77.
- \_\_\_\_\_ (1994-),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 \_\_\_\_\_ (1995),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전규태(1968), 『논주고려가요』, 정음사.
- 河野六郎(1948), 「朝鮮語の過去 deに就いて」, 『東洋語研究』 4(『河野六郎著作集』 1, 平凡社, 1979에 재수록).
- 허 옹(1975), 『우리 옛말본』, 삽문화사.
- 현평효(1985), 『濟州島方言研究 論攷篇』, 이우출판사.